

문화 담론에서 무용 독해 방법 연구

한 헤 리*

목 차

Abstract

I. 서론

II. 무용 독해의 의미

1. 독해 대상으로서의 무용

2. 무용 독해 대상의 분류

III. 무용 텍스트의 범주와 독해

1. 이미지 텍스트와 문화 기억

2. 전승 문화로서의 무용 독해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on dance reading method in cultural discourses

Han, Hea-ree · Kyung Sung University**

Targeting dance image text as a cultural recollection, and dance as a cultural inheritance,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cultural discussions on the past dance and current dance, and to present autonomous, practical dance reading metho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outline as follows.

In cultural discourses, the reading on dance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dance and society, with the premise of the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society involving dance and the dance, beyond the boundaries of knowledge and culture, and people and region.

The goal of reading on dance is to make dance pay attention to the current significant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 Su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13).

논문투고일: 2013. 7. 20. 심사일: 2013. 8. 20. 게재확정일: 2013. 9. 5.

culture, and to create dance newly through diachronic interpretation.

The function of reading on dance is to tell about what is needed in the culture, what is meaningful, and to help share it.

Traditional reading on dance image text as cultural recollection is to read dance in relation to the times' or groups' philosophical thoughts with the concept of arts awakening morality and exploring philosophical problems.

The modern reading of dance image text that exists not as the target of cognition but as the method of cognition is to read dance image text as a recollection of participatory culture.

Reading on dance as inherited culture is to explore the reasons for its inheritance, and to present what it means.

The main purpose of reading on dance as the transfer of culture is not to deliver facts or information on the prototypes, but to read dance as its ties with the community, namely, the community culture by sharing recognition

key words: cultural discourses, dance reading, cultural recollection, inherited culture

주요어: 문화 담론, 무용 독해, 문화 기억, 전승 문화

I . 서론

본 연구는 현전하는 무용에 대한 의미부여 방법 연구이다. 주기가 빨라진 인류의 변화는 얼마 전까지 존재하던 영역의 경계들이 소멸되고, 사상과 제도는 월경越境을 거듭하면서, 기록된 역사 보다는 체험으로 전승된 각각의 문화들이 모든 존재에 대한 정체성의 근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우리 앞의 무용도 예술과 비예술, 감상과 참여, 특수(혹은 독창)성과 대중성, 문화 산업과 오락의 경계들을 넘어 새롭고 낮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무용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며 어떤 의미를 탐색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제시하는 것을 무용 독해로 보았다. 무용에 대한 주요 독법은 전통적 독해, 현대적 독해 그리고 인문학적 독해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무용 양식에 근거하여 독해하는 방법과 이데올로기에 따른 독해 그리고 무용 인식 방식에 따른 해독으로의 분류이기도 하다. 무용을 이미지로 인식하고 존재의 정체성은 체험으로 전승된 문화의 또 다른 표기라고 보고 현전하는 무용 독해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로는 “기표로서의 무용과 매개에 대한 연구”(한혜리, 2009)¹⁾에서 제시한 무용의 인식

1) 2009년 연구의 선행연구로는 “무용에서 이미지와 상상의 관계성 연구”(2005) 그리고 “이미지 시스템에서 무용의 소통성 연구”(2006), “무용읽기와 매체의 관계연구”(2007)이 있다.

방법을 들 수 있다.

무용이 개인의 철학과 시대 의식의 관계적 산물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자, 정보 시대는 분류하기의 전통적 연구 방법의 대항으로 무용과 사회의 관계로 접근하는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미디어의 발달은 개별적 무용 작품의 소통 방법을 다양화하였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로 기능하는 혁명을 실현시켰다. 인간의 사회활동의 결과로서의 무용이 분야나 범주의 경계가 무너지는 지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또 인식되어야 하는가가 본연구가 제시하는 질문이다.

지식의 월경이 보편화되면서 사회적 산물을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던 단순한 분류법은 새로운 지식의 개념들 뒤에 가려지게 되었다. 무용의 분류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거나 그에 따라 무용의 새로운 분야나 영역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무용의 개념들이 달라진 것이다. 이제 무용은 누가 얼마나 보고, 참여 했는가 로 접근성을 거론하기 보다는 무용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담론에 관계하고 있는 가로서 접근성을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의 본 연구는 지난 시대의 역사적 무용과 현전하는 무용을 문화의 담론에서 탐색하였다. 문화 담론에서의 무용은 각자의 정체성에 기반 하여 무용이 사회에 관여한 방식이자 결과물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문화에 대한 선택적 참여로 구축되고 그러한 문화 참여의 기억은 세상을 보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감각 형성의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문화 참여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문화 계승으로 표면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문화 참여에 대한 개별적 기억으로의 무용과 집단적 선택 문화 참여의 결과물 즉 전승 문화에서의 무용으로 연구의 대상을 분류하여 무용 독해의 방법을 연구하였다. 결국, 무용 독해의 대상은 개별적 문화 기억의 무용 이미지 텍스트와 집단적 선택 문화 참여의 결과물인 전승무용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대라고 부르는 근대 이후의 시대는 모더니즘 이후 탈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가 이데올로기로 생성된 시대로 존재나 현상 탐구의 다원화 다각화 방식이 보편성을 띠면서, 우리는 부족, 자산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럼으로 상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있다. 이러한 시각의 다각화 에 의거한 실천적 삶은 세계에 관한 사고도, 세상을 이해는 방법도 다원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무용 독해는 이미지 텍스트나 문화 자산이 언어와 문자로 번역되는 과정이다. 일방적인 지적 언어로의 번역을 통해 지배하고 통제했던 식민주의를 기억하는 인류의 역사에서 개념적 코드를 적용하는 전통적 독해 방법은 점점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정해진 코드

는 결국 개념 역사적 증거물이다. 그런 역사적, 지식적 개념에서 자유로운,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무용과 사회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무용 독해가 가능해져야 만이 지나온 시대의 공감대로서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동지로서 그리고 앞으로 닥아 올 미래를 위한 정향지를 구성하는 협력자로서 인류가 무용을 대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 기억으로서의 무용 이미지 텍스트와 전승 문화로서의 무용을 대상으로 현전하는 무용과 지난 시대의 역사적 무용을 문화 담론에서 탐색하고,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무용 독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 무용 독해의 의미

우리의 담론이 지니는 합리성은 ‘제시되고 생산되는 이유들’ 안에 존재한다
(Lingis A., 2013:28),

무용을 읽고 뜻을 이해한다는 무용 독해는 무용의 주제나 무용이 담은 개인적 의식의 메시지를 무용의 존재 체제에서 탐색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즉 무용 독해는 무용이 지닌 그 무엇을 부각시키고 타인을 설득(혹은 감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무엇이 무용 현상이거나 또는, 무용의 배경이 지닌 개별적 철학일 수도 있고, 동 시대적인 어떤 현상이나 윤리에 대한 개별적 메시지 일 수 있으나 무용은 결국,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에 대한 의지 표현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무용 독해는 지금 우리 눈앞의 무용 그 자체에 주목하고 현전하는 무용의 의미를 과거의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1. 독해 대상으로서의 무용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된 예술작품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서로 상이한 시대의 패러다임들은 근본적으로 공약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공통분모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바탕이 없다. 따라서 어떤 시대에는 가치 있고 의미 있던 삶이 다른 시대에 와서는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영웅이 그랬듯이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된 예술작품은 특정한 삶의 방

식을 비취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예술작품은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리는 역할을 했다(Dreyfus H. Kelly S. D., 2013:183).

의미 대상은 문화적 반향이 되는 본성이 있으며 무용의 경우는 인간의 움직임이 텍스트적 대상이 된다(Lange, R.,1981:13-21). 새롭고 낯선 형태의 현전하는 무용 독해는 무용에 대한 지식과 학습된 경험으로만 읽어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영역 및 분야의 지식과 경험으로 독해되어야 한다. 시대 의식과 사상이 끊임없이 충돌하듯 무용은 각기 다른 가치 논리에서 다르게 독해 될 수 있고 또, 독해 되어왔다. Bourdieu(2006:23)²⁾와 Wittgenstein(2006:98)은 각각 다른 의미에서 예술의 해석과 이해의 일률적인 방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계승되어 오고 있는 학문적 전통에 의한 하나의 독해 방식이 모든 예술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전통적 기준이나 방식에 다른 기준이 더해지거나, 기존의 기준이 변모되어 새로운 형태로 제시되고 적용되었다고 해서 무용 독해 방법의 개혁이나 혁신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지식과 경험은 학문과 문화의 영역에서 서로 교류되어야만 왜곡을 막을 수 있듯이 전통적 무용 독해는 변화한 시대 의식을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지금 이 시대의 무용은 다양한 매개 방법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더욱이 미디어가 내용이 되고 메시지가 되어 버린 전자·정보 시대에서의 무용은, 전통적 분류법으로는 현전하는 무용이 예술의 범주를 벗어나 있기도 하고, 장르적 기준에서는 양식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애매한 무용들이 난무하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기준에 대한 선택의 짐이 지워져 있는 것이 현대적 무용 독해이다.

무용과 개인의 관계에서 양자 간의 상호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무용 독해 방식은 감각이 이성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분류하던 시대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결국,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에 기반 한 무용 독해는 극히 개인적인 것을 보편적 개념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일방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규정적 판단력은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자연법칙과 자유법칙)아래 수렴함으로써 규정하고 반성적 판단력은 주어진 특수한 것에 대한 보편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쓰으로써 스스로 법칙 수립자가 되려고 한다. 판단력이 규정한다 함은 인식에서 주어지는 잡다한 표상들을 보편적 지성의 법칙 아래 귀속시킴으로써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 내거나 실천에서 여러 가지 행위동기들을 보편적 이성의 법칙, 곧

2) 예술작품은 오직 문화적 능력 즉, 해독의 기준이 되는 약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고 오직 그런 사람의 관심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도덕 법칙 아래에 종속시킴으로써 하나의 윤리적 행위를 낳는 것을 말한다(Kant I, 2009:23-24).

판단의 규제성을 극복하기 위해 칸트가 제시한 것이 미적 기예를 통해 길러지는 ‘인문성’이 있다면 현대적 독해가 제안하는 실천적 방법은 판단의 대상을 존재 자체에서 존재(혹은 현상)와 사회와의 관계로 옮겨 간 것이다.

무용 독해는 과학이 제공한 미디어의 혁신과 기술이 완성한 미디어의 상용화로 대상에 대한 개념 변화에서 대상 선택 즉 개념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무용 유통이 문화 산업과 관계되는 반면, 양자 간 소통은 정신이나 의식 교류와 관계 지어 진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은 유통이고 무용 유통의 본질은 무용의 형태가 아닌 의미의 불변성이자 고정성이다. 그러므로 무용 독해에서는 유통의 많고 적음³⁾이 무용의 대중성의 기준이 될 수 없듯이 의식의 개별성 정도나 매개 미디어가 예술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대상과의 직접 만남을 전제로 한 공연 미디어, 체험, 학습 방식의 교육프로그램 미디어 등, 그 매개 방식이나 미디어의 종류를 막론하고 무용에 대한 독해가 정제된 역사적 지식 학습 전달로 진행되는 무용 독해가 우리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러한 독해는 무의미하다. 무용과 개인 혹은 무용과 사회와의 관계에서의 독해가 아닌 무용 자체에 대한 독해는 사상이나 개념의 탐색과 기록 이상의 의미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무용 독해는 대상과 시대를 초월한 관계망을 되살릴 수 없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독해의 대상은 예술무용이지만 그 예술의 개념이 변화하였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예술과 비예술의 장르적 유형적 분류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예술의 새로운 개념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예술사상이 제시한 예술이란 감각적 지각과 상징 그리고 평등한 관계에서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한혜리, 2011: 28)을 구성요소로 한다. 무용 독해의 대상인 감각과 상징 그리고 소통의 체제를 지닌 무용이 이전의 예술 무용과 비견되는 것이라면 예술의 의미와 비예술과의 분류 기준 또한 시대의 산물임으로 변화와 소멸은 당연한 것이다. 새로운 예술사상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예술의 변치 않는 특성은 사회와의 관계성이고 그 관계는 예술의 소통 방식에 기인한다. 무용 독해는 무용과 사회와의 관계를 일정한 지적 개념 코드에 의한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지 않고 지식과 문화 그리고 민족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무용이 현전하고 있는 사회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 체계로 본다. 따라서 문화 담론

3) 다량 생산의 공산품과 유일성의 예술품으로의 통상적인 분류법.

을 통해 제시된 소통 체계에서의 무용 독해는 무용을 통해 사회·문화에 새로운 척도를 제시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 무용 독해 대상의 분류

무용 독해의 대상을 분류한다는 것은 무용의 소통 혹은 소비의 매개와 방식을 분류하는 것과 같다. 즉, 무용 이미지 독해는 무용에 내포된 지식과 개념에 대한 이해가 무용 독해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무용이 작품의 형태로만 소통되던 시대를 지나 무용은 문화 자본의 형태(제도, 문화 상품, 취미 등)로 이미지의 공간에서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지식과 개념을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모든 것을 이미지로 기억하는 시대의 문화유산은 원형의 보존이나 복원보다는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문화에 대한 기억 축적의 근원지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되고 있다. 결국, 문화는 스토리 미닝(story minning)의 근원지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보존과 복원의 목적을 넘어서 스토리 미닝의 근원지로서의 전승 문화는 문화적 실천 영역에서는 원형과는 또 다른 그 무엇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상상력에 근거한 창의성은 아카데믹한 노력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 학습⁴⁾을 통해 습득되고 누구에게나 다른 깊이로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 기억과 관련된 스토리 미닝은 기록적 기억과는 다른 것으로 상상력이나 창의성과 관련되어 있고, 각각의 상황(시대)에 맞는 개념을 받아들여 계승적, 창조적 의미를 부여하는 독해는, 역사적 무용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교육과 관계가 있다. 결국, 이렇게 무용에 내포되어 있는 지식과 개념 즉 이데올로기적 독해는 무용을 무엇으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지식 자료가 된다. 이데올로기적 무용 독해는 시대적 배경과 예술적 배경을 기본 지식으로 무용의 전통적 성향과 창의적 성향 즉 혁신의 범위를 가늠하는 독해로서 결국,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일정 기준이 무용에 대한 인식 방법을 규정하는 성향이 있다.

무용 독해에는 시대적 지식과 개념이 내포되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모든 것 즉, 역사적으로 전승되는 지식과 개념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세계를 표현한 것이 무용임으로 그 무용은 언제나 낯설다. 그 낯선 모습의 현전하는 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방법 제시가 무용 독해일 것이다.

무용 독해란 결국, 무용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로서의 무용 이미지는 그 무용이 만들어진 공동의 문맥과 함께 얽혀 존재할 때 진

4) 가정이나 학교에서 전통문화를 몸에 익히거나 주입받으면서 획득된 성향을 바탕으로 하는 것 (김화숙, 전해리, 한해리, 오레지나, 2012:24).

리를 구현하게 된다. 그리고 무용 독해가 탐색하는 공동의 문맥은 이성적 보편성에 의거한 지식적 개념보다는 실천으로 발현되는 무의식적 습득에 주목한다.

무용이 그 시대, 그 세계의 진리를 구현한다면 어떤 문화가 최상의 빛을 발할 때는 그 당시 문화를 예술이 명료화 할 때임이 분명하다. 무용 독해는 무용을 통해 명료하게 제시되는 시대의 가치관과 규범을 탐색하고 해석한다. 즉, 무용 이미지는 자신이 살았던 세계를 무용으로 명료하게 보여준 결과이고 그러한 무용 이미지 텍스트의 독해는 그 문화에서 의미 있는 것에 주목하게 해주고, 그것에 대한 통시적인 해설을 통해 무용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무용 독해는 그 문화에서 필요한 것,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이다. 그리고 그 독해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배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무용 독해에서 명료하게 제시되기 어려운 것은 동시대 같은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본질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무용이라는 의미이며, 이미 확립된 개념이나 공통의 관례들로 이해될 수 없는 무용이라는 뜻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용 독해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다.

원형의 변형인 예술에서의 상징은 문화의 재설정(reconfiguring⁵⁾)으로 독해되는 반면, 어떤 문화든지 급진적인 재설정을 거부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즉, 새로운 이해를 파괴하거나 재설정의 급진성을 되돌려 현행 질서나 규범에 동화시키는 보수성은 어떤 문화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상징으로의 무용이 보존이나 계승에 목적을 둔 지적 개념의 독해 방식으로 독해되면 그 기준 앞에서는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에서 전승되어 오는 무용은 결국, 누구나 거기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전통 무용이 지니는 가치라면 그 가치의 척도를 보편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무용이 문화 담론에 참여 하게 되는 이유이자 방법이다. 오래 전의 시대를 살아온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떤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무용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문화적 참여는 어떤 측면에서 그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거나 때로는 가치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문화 참여는 언제나 실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배경을 가진 행동으로 판단된다.

5) Dreyfus H. Kelly S. D.(2013:186)의 용어

Ⅲ. 무용 텍스트의 범주와 독해

비언어적, 탈 문자적인 예술 텍스트는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물이 아니라 역동적인 구조물로서 늘 다른 텍스트에 대한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한혜리, 2004:135)는 사실이 무용의 상호텍스트적 이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이나 현상을 이미지로 인식하는 상상과 기억을 무용 인식의 방법으로 보았다. 인식 방법의 다양함은 다양한 무용 텍스트의 가능성을 시사 하지만 새로운 무용이 출현하거나 역사속의 무용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면서 지속되는 것은 언제나 문화적 담론에 의해서 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화 기억으로서의 무용 이미지 텍스트 독해와 무용과 문화와의 관계 즉, 지식과 체험을 공유하고 참여를 선택한 집단적 문화 기억으로서의 전승 무용 독해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1. 이미지 텍스트와 문화 기억

무엇이든 지속되는 것은 의미가 계승되기 때문이다.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행위가 지속력을 지니는 것을 역사적 인간이라고 하고 그 의미의 획득은 감정과 지각 등 모든 것이 공동체와의 관계 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무용 이미지라는 정의에는 시간과 문화적 기억이 구성요소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한혜리, 2009:43).

무용 이미지는 감정의 기억에 의한 것이고, 기억의 과정에 반듯이 존재하는 것이 시간이다. 오랜 시간 기억되어 온 것은 그 의미가 축적된 시간만큼 많을 수 있는 반면, 기억의 지속 기간 동안 원형이 변형되고 왜곡될 확률도 그 만큼 높다. 원형 복원의 의도가 아니라 문화 기억에 의한 이미지 텍스트로 우리 앞에 현전하는 무용은, 원형 변형과 왜곡의 정도가 원형의 형성 시기나 지역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 모든 생명체에 분산 체화된 진화일 수도 있고, 역사적 삶의 흔적으로 존재하는 습관적 행동 중에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의 사회적 행위로 변형된 일부만 채굴된 결과물일 수도 있다.

무용 이미지 텍스트 독해는 변형과 왜곡의 원인 탐색 즉, 무용으로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게 된 문화 기억의 배경에 존재하는 선택적 문화 참여에 대한 조사 연구의 수준이 독해의 논리성과 보편성을 결정한다. 창작인 즉 예술가의 개별적 접근에서 시작하면 심리학적 접근이 될 것이나 사회적으로 접근한다면 교육적 접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인류사적인 의미는 결국, 시대의식을 교육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윤리와 철학 그리고 삶의 방식을 전달하고 선도하는 것이 교육이라면 이 교육적 실천물이 이데올로기적 삶의 복합체인 문화이고 이러한 문화는 개인의 선택적 참여에 의해 그 문화의 거부와 수용의사가 드러나게 된다. 결국, 문화는 삶의 방식임으로 문화 담론에서의 무용 독해는 무용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모든 감각은 자신이 감각할 수 있는 대상에 관계해서 활동하되 가장 완벽하게 활동하는 것은 좋은 상태의 감각이 그 감각에 해당하는 감각 대상들 중 최선의 것에 관계할 때이다(Aristoteles, 2013:360).

감각으로 인지한 모든 것을 이미지로 기억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전자·정보의 시대에, 활자로 기록된 예전의 개념과 지식들이 단지 오늘의 상황과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한 지식 저장고의 역할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삶에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증언처럼 감각은 개인적인 것이고 개별적인 것이지만 개인이 보유한 감각이라는 개별성의 근원은 오래된 문화의 기억들 중 지속되어 남겨진 것들로 결국, 그것이 개인의 존재 방식이며, 존재의 징표이자 자기표현 방식이다.

중세에는 우주를 신의 자유의지의 소산이라고 생각했었으나 18세기는 이성적인 자연법 체계와 합리적인 신앙을 조화 시키는데 노력했고 19세기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관찰하고 있는 세계는 철저한 기계원리라고 믿고 있었다 (Maurois A., 2013:665).

르네상스 시기 이후 계몽주의에서 이어지는 모더니즘 사상 기까지 진리 탐구를 위한 지식의 축적은 인쇄 미디어를 활용한 문자로의 이념교류로 세계의 진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고, 문화 담론도 그러한 사상적 진리의 개념에서 이루어졌다. 무용 독해는 예술의 개념적 정의나 분류에 따라 그 목적과 방법이 달라졌다. 예술 개념의 역사를 바탕으로 본다면 무용을 이해나 인식의 대상이 아닌 인식 자체로 분류하는 개념이 생긴 것은 20세기 이후로 보아야 한다⁶⁾. 물론, 사회나 공동체의 제도를 통한 무용 행위의 계승은 공동체 무용 혹은 문화 자본으로 분류하고 전승 문화로의 무용 독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19세기말부터 신체가 이해해야할 대상에 그치지 않고 인식방식의 주제가 되면서 현대무용danse contemporaine은 시작되었다(Loupe L., 1996:9).

올바르게 살기 위한 규범에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것은 고금을 통해 항상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akrasia* 또는 의지의 허약함이라 불렀다.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알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 (Dreyfus H. Kelly S. D., 2013:37).

시대가 제시하는 올바른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개인의 의지를 문제 삼던 역사를 지나 이제 우리는 무엇을 좋은 삶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가 규정하고 판단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무용은 이제 이성적 지식으로 제시된 정의나 규범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판단하거나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생각을 통해 인식의 또 다른 방향을 제안하려는 그 어떤 의지 표명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있다.

전통적 독해에서의 무용이 누구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전제로 인간의 본성과 나약함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근대 계몽주의 이후 현대적 독해에서의 무용은 행동의 선택권이 있는 인간의 망설임과 기다림 그리고 슬픔과 불안, 상실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전통의 고정된 세계에서 불확실성의 세계로의 이행이 배경인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자유는 결국, 문화적 참여를 선택하는 자유에서 비롯된다. 역사적인 나 그리고 문화적인 나, 종교적인 나는 의식과 의지에 의한 문화 참여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개별적인 나에서 생성된 무용의 현대적 독해란 참여한 문화에 대한 기억으로서의 무용 이미지 텍스트를 독해하는 것이다.

문화 기억으로서의 무용 이미지 텍스트 독해는 이데올로기는 물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정치, 사회 제도, 문화적 배경 그리고 안무자나 무용수, 작곡가, 무대 설치 관련자들에게 출생과 혈연, 학력, 사상, 건강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에 이르는 전기적 사실들에까지 주목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무용의 구조, 수용, 맥락을 바탕으로 무용에 의미가 생성되는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독해 방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방법이 무용 창작인과 작품의 관계에 주목한 독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 텍스트와 관객 혹은 참여자의 관계에 주목한 독해로 무용과 사회와 관계로 무용을 독해하는 방법이다.

흔히 전통적 방법과 현대적 방법으로 분류되는 두 가지 방법의 근본적 차이는, 전통적 독해에서는 무용이 도덕성을 깨우치고 철학적 문제점을 탐색하는 것이라는 개념적 전제 하에 있고, 어떤 시대나 집단의 철학적 사고와 관련해서 무용이 독해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낭만주의 양식의 발레가 당시의 문학작품이 무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되어 예술사의 한 분야로 존재하는 것이 사례일 수 있다. 이러한 역사는 이야기가 있는 형

7) 텍스트는 수많은 문화적 요인들이 충돌하는 다차원적인 공간이라는 Barte R.(1977)의 이론에 근거.

식의 발레를 무용 양식 용어로 공용하게 되었고 16세기 <왕비의 발레 Ballet de la Renne, 1581>를 최초의 발레로 해석하는 것에서 증명된다.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에서 행해진 마당놀이나 들놀이, 산대놀이에 포함된 대동놀이 속의 춤들(탈춤 등)이 해학적이거나 풍자적 구성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용이 해석되고 그러한 해석 방식에 의해 종류가 분류되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무용 독해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류 고찰 혹은 전승이 지속되는 원인과 이유를 탐구하고 규명하는 것이 임무이다. 19세기 이후 무용이 더 이상 신이나 왕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면서부터 가무용수들은 가면을 벗고, 자유로워지기 시작하였을 때 부터 무용은 더 이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방식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을 보는 방식을 선택하는 자유를 무용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문화를 선택하여 참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주체가 되었다는 뜻으로, 보편적 개념이나 지식만으로 개별적 성격의 무용 이미지를 독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세계를 사는 지금, 이곳의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과 행동이 무용이고 그러한 무용을 사회와의 관계에서 독해하는 것이 전통적 독해에 대항 구조인 현대적 독해이다.

각자의 상황에서 실존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관객에게 좋은 무용이란, 관객이나 무용 참여자가 내면에서 덜 외롭도록 공감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선택의 책임을 갖게 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게 된 사람들에게 무용이 독해되어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일 수 있다.

2. 전승 문화로서의 무용 독해

전승 문화로 무용을 독해한다는 것은 결국 시대적 지식과 개념의 역사 속에서 무용을 독해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으로의 무용 독해는 결국, 무용에 대한 사회적 접근으로 그것이 전승되는 이유를 탐색하고 지금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계승되고 있는 무용의 의미와 그것이 계승되는 역사적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독해는 설득력을 잃어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무용의 변화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무용의 정체화를 유발한다. 단순하고 명확한 분류 기준으로 지역과 민족과 문화가 나뉘어지는 시대는 공통의 이념과 가치가 위계질서 체제로 존재할 때이다.

우리의 장소는 얼마나 불안정 한가? 이는 모두 우리의 존재 기반이 사라졌고, 우

리의 기원이 상실되었으며 우리가 땅이나 과거와 맺고 있던 유대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이다(Said Edward W., 1986)⁸⁾.

제국주의로 인한 식민주의 정책 때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영토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는 시작점만 다를 뿐 인위적이고 권위적인 경계 짓기에서 비롯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이다. 기원이 상실되고 목적적 변화만이 성행할 때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장소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한 기억 즉 그것과 관계 맺었던 것들에 대한 지속적 기억에 의해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 의미의 지속이 전승 문화인 것이다.

재산property과 소유한 것the proper 소유ownership와 획득possession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인들과는 달리 이러한 개념들이 없는 문화도 있다.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면 결코, 동화될 수 없다. 실례로 유목민은 땅을 이용하고 땅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만 땅에 대한 재산이나 소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땅에 맺고 있는 관계는 조상으로부터 계승되는 신성한 관계이다. 서로 동화될 수 없는 땅에 대한 두 다른 생각은 결국, 많은 식민지화된 국가들에서 이주자들은 전통적으로 그 토지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거대한 농장과 정원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지식과 개념의 역사를 기억하는 현대 사회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어떤 측면에서는 역사를 조작하기도 한다. 역사의 시작은 문자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

문화가 오랜 기간 전승되기 위해서는 공간이 사회와 관계를 맺는 실천적 삶이 문화 기억으로 전승되어야 하며 그래서 생성된 것이 의식 행위이고 땅과 인간의 이러한 유대 관계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영토의 경계는 언제나 달리 책정될 수 있지만 단지, 어떤 목적에 의한 경계가 땅과 인간의 오랜 유대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땅과 인간의 유대 관계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언제나 지역이나 땅을 기반으로 전승되는 의례나 의식 행위였고 그러한 문화속에서 전승되고 있는 춤이었다. 그 춤은 지금의 지역적 민속무용이나 지역 기반의 민족 무용 그리고 의식무용, 종교무용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전승된 문화에서의 무용 독해는 지역에 대한 문화적 지식 없이는 독해될 수 없다. 독해된다 하더라도 전승되는 무용의 지역적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전승되어 오는 무용을 독해할 때에는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외부의 관찰자의 해석에 부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전승되는 무용의 독해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무용을 하는(직접 추거나, 공연이나 행사를 기획하

8) <http://www.un.org/unrwa/palestine> 분쟁에 대한 내용에서 발췌.

거나, 무용 자체를 재구성- 춤, 의상, 락기, 노래 등) 사람에게 그 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는 무관하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예찬과 일상생활에서 억압을 경험하는 많은 소수 집단들이 실제로 처한 상황의 간극으로 인류가 다시 생각하게된 것은 세상에 다양한 방식의 문화 전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가 주목하는 것은 그 중에는 물질적이기 보다는 인간적인 방식들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세상 모든 것을 분류하고 그 영역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위계질서로 세상을 이해하게 하는데 공헌한 근대성 조차도 서양자체의 발명품은 아니다. 근대성은 서양이 다른 세계들과 주고받은 상호작용의 산물로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이 학문적 지식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계승된 것이다. 그러한 일방적 기준과 그에 따른 단편적 인식이 원인이 되어 상대적인 가난과 무기력함을 발생 시켰고 한편, 자연자원의 착취로부터 상품과 곡물에 대한 불공정한 가격, 나아가서 국제적인 성 매매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불평등을 확산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 복지와 권리의 옹호는 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층계급, 젠더나 민족성 때문에 주변화된 집단들 즉, 지금까지 신분적 계급 정착에 낄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대중들의 대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까지 확장되었다. 누구를 대신한 주장과 옹호도 인간 불평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대 의식은 각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요청하고 있다.

전승 문화로의 무용 독해는 계승되어 온 사상과 개념이 만든 지식으로 현전의 존재들을 이해할 수 없는 한계점에서 생성되어 진화된 인문학적 독해 방식이다. 무용을 전승문화로 독해하는 인문학적 무용 독해는 결국, 탈문자나 비언어로 제시된 이미지 텍스트를 문자로 번역하는 것인데 그 번역의 도구인 언어는 결국 개념 언어이다.

구술 문화를 글쓰기의 그물과 함정으로 문자로 변형시키는 일이 번역이며, 역사적으로 번역은 지배하고 통제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19세기 까지 언어는 계급과 민족처럼 위계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구술 문화나 전승 문화가 언어로 번역될 때에도 언어와 문화와 사람들의 관계에 위계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이념적, 물질적, 인간적 폭력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것이 무용이 지식이나 개념으로 독해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며, 전승된 문화로 독해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다. 그리고 전승 문화로의 무용 독해는 현재의 가치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억되어 전승되어 현전하는 것 자체로 즉, 그것의 기원과 현재의 모습이나 상태 그리고 앞으로 부여될 의미 탐색을 목표로 독해되어야한다

우리는 타인들이 여론 형성에 관여하는 것을 세뇌brain washing 혹은 선전 propaganda이라고 부른다.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기억에 새겨지고,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며 신념을 강화한다.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되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잊힌다. 이런 왜곡을 확증편향confirmatory bias이라 부른다. 개인이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할 때 그의 눈에는 자신의 신념에 완전히 부합하는 증거만 들어오기 때문이다(Stiglitz Joseph E. 2013 :271. 276).

문화 전승으로서의 무용독해의 주 목적은 사실 혹은 원형에 의한 시대 문화의 정보 전달이 보다는 인식전달이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전승되는 문화는 그것이 물리적 형태를 지니고 있던 또는 행위로의 전승인지와 무관하게 당시 시대의식의 총체이자 결과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승 문화의 독해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라이프 스타일(문화)에 대한 반성적 판단을 하게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성에 호소하는 이야기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문화 전승으로서의 무용 독해는 무용을 개념 언어로 번역하여 인류 문화사적 지식 정보가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승 무용을 지역과의 유대관계 즉, 지역 문화를 배경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새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IV. 결론

일정한 지식의 코드로 읽는 무용 독해가 아닌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무용 독해는 지나온 시대의 공감대로서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동지로서 그리고 앞으로 닥아올 미래를 위한 정향지를 구성하는 협력자로서 무용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무용은 시대 의식에 대한 개인의 의지표현임으로 무용은 무용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독해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 문화 담론에서 무용 독해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문화 기억으로서의 무용 이미지 텍스트와 전승 문화로서 무용을 대상으로 지난 시대의 역사적 무용과 현전하는 무용을 문화의 담론에서 탐색하고,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무용 독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문화 담론에서 무용 독해란 지식과 문화 그리고 민족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무용이 현전하고 있는 사회와 무용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전제로 한 무용과 사회와의

관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무용 독해의 목표는 무용이 현전하는 문화에서 의미 있는 것에 주목하게 해주고, 그것에 대한 통시적인 해설을 통해 무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다.

무용 독해의 기능은 그 문화에서 필요한 것,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문화 기억으로의 무용이미지 텍스트의 전통적 독해는 예술이 도덕성을 깨우치고 철학적 문제점을 탐색하는 것이라는 개념적 전제하에 어떤 시대나 집단의 철학적 사고와 관련하여 무용을 독해하는 방법이다.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방식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무용 이미지 텍스트의 현대적 독해란 참여를 선택한 문화에 대한 기억의 기록으로서의 무용 이미지 텍스트를 독해하는 것이다.

문화 전승으로의 무용 독해는 그것이 전승되는 이유를 탐색하고 지금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전승무용 독해의 주 목적은 사실이나 원형의 문화적 지식 정보전달이 아니라 인식전달로 지역과의 유대관계 즉, 지역 문화를 배경으로 무용을 해석하고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화숙, 전해리, 오레지나, 한혜리(2012), **Community Dance**, 서울:한학문화.
- _____, 신은경, 신정희, 류분순, 오레지나, 한혜리(2013), **무용교육론**, 서울:한학문화.
- 한혜리(2004), “무용의 예술적 범 영역성에 관한 연구-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é)적 접근-”,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5집 2호**, 129-145.
- _____(2005), “무용에서 이미지와 상상의 관계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6집 2호**, 1-13.
- _____(2006), “이미지 시스템에서 무용의 소통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7집 2호**, 113-128.
- _____(2007), “무용 읽기와 무용 매체의 관계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8집 2호, 69-86.

_____(2009), “기표로서의 무용과 매개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0집 3호**, 129-145.

_____(2011), “예술통합 무용교육 방법론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2호**, 21-37.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김상진, 김재홍, 이상우(역, 2013), **니코마스 윤리학**, 도서출판 길.

Bourdieu, P.(1979), *La distinction- critique du Jugement*, 최종철(역, 2006), **구별짓기**, 새물결.

Dreyfus H. Kelly S. D.(2011), *Reading the western classic to find meaning in a secular age. All things shining*, 김동규(역, 2013), **모든 것은 빛난다**. 사월의 책.

Lange. R.(1981), “semiotice and Dance”, *Dance studies Vol 5*.

Lingis, A., *The community of those who have nothing common*, 김성균(역, 2013),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은 자들의 공동체**, 바다출판사.

Loupe, L. ‘Avant propos’, Aubaret M.(Transcrittion, 1996), *Que dit le corp?*, Alès:le caractère.

Maurois A.(1978), *Histoire d’Angleterre*, 신용석(역, 2013), **영국사**, 김영사.

Said Edward W.(1986), “The last Sky”,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rein Refugees in the Near East(UNRWA), <http://www.un.org/unrwa/>

Stiglitz Joseph E.(2012), *The price of inequality*, 이순희(역, 2013),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들.

Kant I.(1790), *kritik der urteilstkraft*, 백중현(역, 2009), **판단력 비판**, 아카넷.

Wittgenstein, L.(1980), *Culture and Value*, 이영철(역, 2006), **문화와 가치**, 서울:책세상.